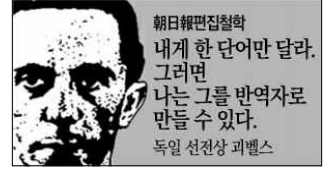




형은 동생이며 공범이었다. 개공백두

# 朝日報



朝日新聞記者  
내게 한 단어만 달라.  
그러면  
나는 그를 반역자로  
만들 수 있다.  
독일 선전상 괴벨스

2012년 6월 4일 창간 | 제 11 호

Jo.com

2012년 7월 4일 (화) 개판

## 설사

### MB는 미국과 단교(斷交)하라

미국 CNN이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훼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북한 트위터 계정을 인용한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도 전하며,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이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낙하산 사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막고 있어 한국의 주요 방송 두 곳이 파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27일 인터넷판에 올린 ‘북한 남한에 투자 재개 요청’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고(故) 이명박 대통령’으로 표기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 같은 미국의 대표매체들의 연이은 도발은 지켜보는 우리의 심경을 찡찡하게 한다. 자존심과 국격을 훼손해 가며 미국을 혈맹이라고 표시했고, 경제 종속이 불을 보듯 뻔한 FTA를 체결했으며, 잠재적국인 일본과의 군사협정 요청까지 국민을 속여 가며 수용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야유와 비방이다. 이는 우리 체제에 대한 무시이자 도발이다.

물론 미국 정부와 민간 매체인 CNN과 뉴욕타임스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우리와 북한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언론을 통제 못하는 권력은 없다. 김재철 MBC 사장도 ‘이빨 빠진 호랑이’이나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하다며, 사장직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다.

미국의 도발에 우리는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카드로 응수해야 옳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日과 비밀군사협정 한일수교반대는 왜?



비록 기회주의자이긴 하나 일관된 처세의 길을 걸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인 1964년 6월 3일 한일국교 정상화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을까. (사진) 그래놓고 지금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여지를 남겨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군사협정을 맺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 여러 교회 간증 자리에서 “자신은 여타 학생회장과는 달리 우파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지’들과 한일 수교 반대의 입장은 같았지만 자신의 투쟁 취지나 동기는 달랐음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은 나라 대 나라 간 동등한 입장에서의 외교관계 회복이 아닌 경술국치 즉 1910년 이완용의 간계로 맺어진 한일병탄 사건 같은 두 나라 사이에 합병이었던 것이다.

본디 일본이 조국인 이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분단을 안타까워해 이 같은 상황이 고착화되는 한일수교에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대통령 취임으로 조국과 타국의 병합을 피했던 것이고, 한일군사협정이 이 같은 계획의 완성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며칠 전 각료에게 “국민 실득 없이 진행했다”며 격노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것이 그의 지시와 재가로 진행된 일이라고 증언했다. 혼란스러울 것 없다. ‘실득 못한 국민’은 조국 일본 국민이다. 고로 MB는 지극한 애국자다. 일본 애국자.

개기를 기자 dogoii@jo.com

### 리빙 포인트



#### 돌아일보 기자라면

‘문재인 피의자’ 기사를 보면 기자수업 경력은커녕 초등학교 졸업조차 의문시 된다. 역사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집에서 편히 쓴다.

### “환우에게 위로를” 박근혜 전 위원장 온정 새삼 화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온정에 만인이 감응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룰살롱 중독증에 걸린 정우택 최고위원을 찾아가 “병 걸리셨습니까”라는 말로 따뜻하게 위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 최고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신이) 관찰사라면 기생을



넣어 줬을 것”이라고 말하러 가 하면, 본인 자신도 성상납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는 의혹의 주인공으로 물러 중독증상을 의심받아 왔다. 한편 정 최고는 “환우에게 증상을 묻는 태도는 수권 국가 최고자 후보로서의 인덕과 자질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며, “감사한 마음에 기생을 넣어드리고 싶는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고 솔회했다.



전속 광고모델 정봉주

# 각하, 다 준비됐습니다

## 감옥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